

[사회]

■ 전남지역 공중보건의들 황당한 근무 실태

혈세 月 150만원 받고도 몰래 '고액 알바'

지난해 10월 초, 치통에 시달리던 김모씨(여·68)는 집에서 3km가량 떨어진 여수시 남면의 한 보건지소를 찾았다. 그러나 당연히 근무하고 있어야 할 치과 담당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 A씨는 자리에 없었고, 김씨는 진통제 처방만 받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다음날 다시 보건지소를 찾은 김 씨는 'A씨가 출장 진료 중'이라는 직원의 말만 믿고, 배를 타고 1시간50분이 걸리는 여수 시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출장 진료를 갔던 A씨는 당시 보건지소를 무단 이탈, 여수 시내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감사원 특별조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여수를 비롯한 전남·북, 경기, 경남의 도서(島嶼)지역 공보의 근무실태 암행감찰에 나서 여수지역 공보의 28명과 영광지역 공보의 3명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적발,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이들은 대부분 8일 이상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보의 자격이 박탈되며 공익요원으로 재임대해야 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8일 현재 여수시 도서지역 보건지소 6곳에 근무하는 20명의 공보의 가운데 무려 90%인 18명이 근무

인근 병원에 출장 하룻밤 50만원 감사원, 여수 28·영광 3명 적발 치료 못받는 주민 진통제만 처방

지를 비운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근무지 이탈로 적발된 나머지 10명은 이전 근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수 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21회에 걸쳐 무려 171일이나 자리를 비웠다. 같은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또 다른 세 명의 공보의도 각각 104일, 84일, 78일 동안 '장기출장' 중이었다. 이들 공보의는 근무교대를 통해 한두 명만 자리를 지키고 나머지는 시내 병원에서 야간당직이나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는 자택이나 친지 집에서 시험공부를 했다.

영광군의 경우 1곳의 도서지역 보건지소가 있으며, 적발된 3명은 현재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세금으로 평균 150만원씩 월급을 받는 공보의가 근무지를 이탈,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보건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체계와 공보의들의 도덕 불감증이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공보의들의 '알바'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평일 기준 하룻밤에 30만~5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군에 입대하는 대신 농어촌의 보건소에서 3년간 근무하는 공보의는 보건복지부 소속이지만, 실질적인 관리감독은 일선 시·군·구 보건당국이 맡는다. 전남도의 경우 매년 1차례씩 일제 점검을 해왔지만 하지만 현재까지 근무지 무단이탈을 적발한 사례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보의가 근무지를 이탈해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러나 도서지역 보건지소 32곳을 포함, 전남도 내 209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729명의 공보의를 5명의 인력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화창한 하루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다.

4월 9일
(음 2월 22일)
◇전국날씨

광주	맑음	4~18℃
부산	맑음	5~17℃
대구	맑음	8~17℃
대전	맑음	5~18℃
전주	맑음	1~19℃
서울	맑음	1~19℃
인천	맑음	5~18℃
안동	맑음	1~19℃
충주	맑음	3~19℃
청주	맑음	3~17℃
포항	맑음	3~18℃
울릉도	맑음	0~19℃
독도	맑음	2~18℃

▲해돋이 06:09 ▲해질 19:00 ▲달돋이 00:28 ▲달질 09:48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0(화)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날씨						
최저/최고	5/26	7/19	8/20	11/17	7/20	6/21



어제 부활절... "은누리안에 관심음" 부활절인 8일 오전 10시30분 광주 문흥동 성당에서 열린 대미사. 천주교 광주대교구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는 이날 "오늘날 우리 지역에서는 부당한 대우로 신음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국제결혼을 통해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라는 부활 메시지를 보냈다. /위정각기자 jrwi@kwangju.co.kr

심폐 기능 강화 비만 해소 위주 초중고 체력검사 개선

운동능력 평가 위주로 이뤄졌던 초·중·고교 체력검사 방식이 비만 해소와 심폐기능 강화 쪽으로 개선되고 검사 대상에 초등학생도 포함되는 등 56년 만에 완전히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1951년부터 시행해온 '학생신체능력검사'를 '학생건강 체력평가'로 개선, 2009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맞춤형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Physical Activity Promotion System)을 개발, 올해부터 화순초·담양중·별교 제일고 등 전국 18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PAPS는 ▲심폐지구력 ▲근력·근지구력 ▲유연성 ▲체지방 ▲순발력 등 5개 분야 평가를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평가 종목은 윗몸일으키기, 1천600(1천200)m달리기, 앉아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 기존 6개에서 윗몸일으키기는 빠지고 페이스(왕복달리기)와 스텝검사, 종합유연성검사, 약력검사, 체지방량 및 허리엉덩이 비율 측정 등 9개가 추가된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지구 온난화 탓? 지리산 반달곰 겨울잠 12일 빨리 깬다

이상고온에 일찍 활동 나머지 7마리도 오는 10일을 전후해 모두 동면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달곰들은 지난해 12월6일 연해주산 '로드'가 경남 함양 '국골'에서 첫 동면에 들어갔었다. 공단 측은 올해 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졌고, 지난해 말 지리산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 내외까지 치솟아 예년보다 더 일찍 깬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2005년의 경우 동면에서 처음 깨어난 시점은 3월31일, 2006년에는 4월7일이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칠산바다 너울 피해 21억...국고지원 요청

영광과 신안 등지에서 최근 강풍과 해수범람으로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해 지방비 등이 복구비로 긴급 지원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사흘 동안 높은 파도와 해수범람으로 영광과 신안, 무안에서 21동의 주택이 침수되고 84척의 선박이 파손됐다. 또, 수산 양식장 50군데가 피해를 보았고 어망과 어구 3천700여 개가 파손돼 모두 21억1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남자교사 일정비율 이상 임용 추진 "女超해소" "여성차별" 논란

3시 현재 각각 1천482건과 1천179건의 댓글이 붙어 '최대 의견 뉴스' 1, 2위를 기록 중이다. 네티즌들은 일단 '한성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7일부터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서 8일 오후 3시 현재 1만6천356명이 참여해 이중 75.18%인 1만2천296명이 '한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대'는 23.2%(3천795명), '모르겠다'는 1.62%(265명)이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서울시교육청이 여교사 신규 임용 비율을 제한하고 남자 교사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초·중·고교 교원 신규 임용시 남자 교사의 선발 비율을 30% 이내에서 16개 시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여교사 비율이 각각 77%와 60%에 달하고 전남도 각각 60%와 54%에

남자교사 일정비율 이상 임용 추진 "女超해소" "여성차별" 논란

적과 초·중학생의 균형잡힌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 중 일부는 "여성차별"이라는 지적과 관련, 여성 역차별이라는 지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배출

4월 2일 첫진도 개강

노동부 인정 직업능력훈련기관

고용보험재직근로자 수강료 환급

제10회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주택관리사

제8회 주택관리사 시험 광주지역 합격자 196명 중 본인출신 143명 합격!

본원 ☎ 227-8003 (주)도청 앞 전일빌딩 4F

첨단점 ☎ 971-0002 빅마트 첨단점 옆 광주은행 4F

경찰직 수험생 및 직장인(20~40세) 공무원합격 절호의 기회!

교정직 특채

360명 남자329명 여자31명

시험일정: 5월 13일 개강 4월 2일

원시접수: 4월 9일 ~ 4월 15일

시작부터 합격까지! 합격생들에게 100%검증된 서울고시학원에서 합격의 꿈을 이루세요!

서울고시학원 북구청 맞은편 (062) 251-7959

새로 발명한 발목펌프 운동봉

운동효과

발목 펌프 운동이란, 혈액 순환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질환에 대한 걱정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신경통, 비만 등 각종 성인병의 원인으로 사람의 심장에서 밀려나간 혈액은 발목까지 내려가면 힘이 쇠진해진다. 지속적인 왕성한 혈액순환을 위하여 새로 개발한 운동봉위에 다리를 들었다 떨어뜨리는 운동으로서 발목 근육에 자극을 가하여 온몸의 혈액순환 기능을 정상적으로 복원시켜 주기 때문에 각종 질병이 치료 되면서 혈액순환 개선과 특히 하체 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신발명 발목펌프 운동봉이란

직경 7cm 길이 31cm 원통목재와 직경 6.4cm PPC원통 길이 31cm의 각각 양쪽 가장자리에 직경 5cm 스프링 2개를 장착하여 소용진동을 완전 해소 시켰음으로 APT에서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하며 스프링의 완충작용으로 인하여 발목근육의 통증을 원시킴으로서 발목이 전혀 아프지 않음으로 장시간 지속적인 운동이 가능한 것 등이 새로 발명한 발목 펌프 운동봉의 특징이다. 종전의 각종 통나무, 대통, PVC등 원통형 운동봉은 소용진동 때문에 APT에서는 사용이 전혀 불가능 하였으며, 재질이 딱딱하여 발목이 아파서 사용을 제대로 못하였다.

운동방법

1. 누워서 운동봉(아래 수건을 깔것)위에 두 다리를 올려 놓는다.
2. 한쪽 다리를 20~30cm 위로 올렸다가 떨어뜨리기를 50번씩 번갈아 좌, 우 교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처음은 하루에 500회, 1,000회 차차 횟수를 늘려 1일 3,000회 정도 매일 꾸준히 하여도 발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의문사항에 친절히 답하겠습니다.

온라인계좌 : 광주은행125-121-002455, 농협601154-52-335334 예금주 : 서영섭

상담전화 TEL.062)672-2002, H.P. 011-609-0450